

2008-2 474호
서울YWCA 후원한 소식지

정직하면 행복하다



박영숙 |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거짓말도 잘하면 눈 닳 마지기보다 낫다’는 속담이 있다. 처세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말로 들린다. 속담처럼 거짓말과 거짓행동으로 대표되는 부정직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남을 해코지하거나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도 위기를 모면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남을 배려하는 선의의 거짓말을 지칭하는 ‘화이트 라이’라는 것도 있지 않은가.

지난해는 학력 위조 사건을 비롯한 고위급인사들의 부정, 비리, 위법사건들과 관련된 부정직성 논란으로 얼룩진 한해였다. 거간의 언론과 사법부의 난해한 행보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부정직에 대한 국민의 불감증을 유발하는데 일조하였다. 오죽했으면 생각 있는 사람들 입에서 ‘이럴 수가 있나’ ‘어찌 이런 법이 있나’ 하는 개탄이 나왔겠는가! 무엇보다 서글픈 것은 우리 사회의 부정직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무성했던 부정직 논란을 반영하듯 어느 교수 집단에서는 ‘자기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自欺欺人’을 한 해를 보내는 사자성어로 선정했다고 한다. 거짓은 사람을 속이고 법망은 피할 수 있을지언정 자기 양심을 속일 수는 없다. 구약의 예서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것처럼 양심을 하찮게 팔아넘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상실이요 자기 파괴이다. 거짓이 거짓을 낳는 거짓의 속성에 휘말리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남의 눈치를 살피야 하는 비굴한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자신에게 정직하다는 것은 의지와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분명히 해낼 수 있는 일이다. 작은 일에서부터 실행을 거듭해보자. 십계명에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다. 이에 비하면 공중화장실에서 다음 사용할 사람을 위하여 배려하기와 같은 작은 정직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신뢰사회는 우리 개인이 자신에게 정직한 삶을 사는 바탕 위에 세워진다.

어떤 가정에서 행복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족구성원 각자가 ‘자기 헌법’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한 자기의 행동 강령이며 자기와의 약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신뢰사회 회복을 위한 서울YWCA의 정직캠페인이 거짓이 횡행한 우리 사회를 정화하는 불씨가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자기 헌법을 만들고 지키기를 제안한다. Y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신뢰사회는
우리 개인이 정직한 삶을 사는 바탕 위에 세워진다
자신에게 정직하다는 것은 의지와 훈련을 통해 해낼 수 있다

* 서울Y는 정직이 기본 덕목이자 최고 가치가 되는 사회를 꿈꾸며 2008년 한 해 동안 정직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정직과 신뢰사회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오늘 우리가 문제삼고 있는 부정직은 흔히 거짓말과 거짓행동으로 사람들을 사이에서 동떨어지고 있다. '거짓말도 잘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속담이 있다. 허세를 부리는 거짓말을 해도 돈은 별로 들린다. 거짓말에는 남을 해코지하기 위한 것, 자기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악기반 기기를 모조리 하기 위한 부류이하는 경우가 많을 때라 한다. 심지어 거짓말인 '화이트 라이'라는 것으로 양심의 양심이다. 사람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기로 하고 사실만을 고집해서 드러낼 뿐이다.

지나가는 학제위조사건을 비롯한 고위층인사들의 부패, 비리, 위법사건들과 같은 건전한 부정직도 많은 실용적 한계였다. 거장의 언론과 사회주의 논쟁하는 행보는 국민을 호감스럽게 함으로써 내리 부정직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유발하는데 일조하였다. 오죽했으면 생각있는 사람들이 '이런수가 있다' '이런법이 있다'라는 개탄이 나왔겠는가! 무엇보다 저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사회에 부정직을 향해 돌을 던져주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부정직도 많은 반영하듯 어느 파견관에게는 '자기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自欺欺人>을 한해로 보려는 사회성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이 말에서 보듯 자기를 속이고 하려는 취향들이라도 절치 않을지언정 어떻게 자기를 속일수 있는 말인가? 거짓은 사람들을 속이고 법망을 피할수 있을지언정 자기양심은 속일수 없다.

'예수'가 배움을 들 달리기 위해 땀을 흘리는 곳에 장자권을 펼칠수 있는 양심을 하찮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자기양심과 자기타락을 의미한다. 거짓이 거짓을 낳는 거짓의 속박에 휘말려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자기 앞의 주인이 아닌 남의 노예를 함락해 하는 비극한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자유인이 될수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이 있다. 자신에게 할수 있는 일과 하는 것은 의지라 다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해낼수 있는 일이다. 작은 일에서부터 실행을 거듭해 보라. '이것을 해라'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것은 쉽게 이해에 명해지는 공물한 계명이다. 이에 미치지 못하면 공동체생활에서 다음 시를 할수 있는 것은 배려등의 작은정직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신뢰사회는 우리 개개인이 자신에게 정직하는 삶을 사는 바탕 위에 세워진다고 해서 우리를 더 작은 신뢰의 힘수행이다. 을지자기위한것이다

어떤 기업에서 행복한 기업문화를 취하기 위해 기업정신을 지키기 '자기희생'을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이해적이다. 자기를 지켜야 할것을 지키기 위한 자기희생은 강령이래 진리의 양속 서로가 신뢰사회를 지향하는데 관계하고 있는 2004 정직 캠페인에서 사람을 돌보아 주는 행동의 원리를 제안한다.

08-1-20

4월/월/8

7, 2, 24

정직과 신뢰사회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오늘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부정직성은 흔히 거짓말과 거짓행동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다. '거짓말도 잘하면 눈 닷 마지기보다 낫다'는 속담이 있다. 처세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말로 들린다. 거짓말에는 남을 해코지하기 위한 것, 자기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와 남을 배려하는 선의의 거짓말인 '화이트 라이'라는 것도 있는데서인듯하다. 사람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기도하고 사실만을 고집해서 손해를 보기도 한다.

지난해는 학력 위조 사건을 비롯한 고위급인사들의 부정, 비리, 위법사건들과 관련된 부정직성 논란으로 얼룩진 한해였다. 거간의 언론과 사법부의 난해한 행보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부정직성에 대한 국민의 불감증을 유발하는데 일조하였다. 오죽했으면 생각 있는 사람들 입에서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법이 있나'하는 개탄이 나왔겠는가! 무엇보다 서글픈 것은 우리 사회에 부정직성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무성했던 부정직성 논란을 반영하듯 어느 교수집단에서는 '자기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自欺欺人>을 한 해를 보내는 사자성어로 선정했다고 한다. 이 말에서 보면 자기를 속인다고 하는데 최면술이라도 걸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를 속일 수 있다는 말인가? 거짓은 사람을 속이고 범망은 피할 수 있을지언정 자기 양심을 속일 수는 없다.

'에서'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것처럼 양심을 하찮게 팔아 넘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상실과 자기파괴를 의미한다. 거짓이 거짓을 낳는 거짓의 속성에 휘말리다 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닌 남의 눈치를 사르며야 하는 비굴한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자유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자신에게 정직해진다고 하는 것은 의지와 디서플린을 통해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이다. 작은 일에서부터 실행을 거듭해보자.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십계명에 명시된 중요한 계명이다. 이에 비하면 공중화장실에서 다음 사용할 사람을 위하여 배려하는 것과 같은 작은 정직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신뢰사회는 우리 개개인이 자신에게 정직한 삶을 사는 바탕위에 세워진다는 데서 우리들의 작은 실천이 필수적이다.

어떤 가정에서 행복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족구성원 각자가 '자기헌법'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한 자기의 행동강령이며 자기와의 약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저울 YWCA가 신뢰사회를 지향하며 전개하고 있는 2008 정직캠페인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제안한다.

거짓이 횡행한

신뢰사회를 회복하기 위한 저울 YWCA의 정직캠페인이 우리사회를 신뢰하는 문화로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자기헌법을 만들고 지키기를 제안한다.